

임실군민 마스크 무상배부

순창 코로나 1호 확진자 직위해제

군, 보건의료원 과장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

코로나19 예방 위해 1인당 6매씩 3차 지급·특별방역 지도점검 등 만전

임실군이 올해 세 번째로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상배부하는 등 마스크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고, 군민 안전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6매씩 마스크를 무상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 KF94 마스크 5개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을 맞아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KF94마스크 1개를 추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7일부터

14만7,570개를 배부한다.

군의 마스크 방역 정책은 지난 3월 마스크 대란 당시 전 군민에게 배부한 데 이어 8월에 2차 배부를 하고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마스크 방역 외에도 손소독제와 소독약이 부족한 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관내 식당, 카페, 이미용업, 종교시설 등 1100여개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민 군수도 연말 전 부서별 코로나 대응 업무에 항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 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만큼 이번 마스크 배부로 군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은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순창군 최초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A과 과장(5급)이 직위해제됐다. 군은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코로나19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 A과 과장은 12월 10일 군내에서 발생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로, 16일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는 등 행정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에 거주하는 A씨 큰 딸인 B씨가 맛을 못 느낀다는 이상증세를 호소,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A씨와 A씨의 배우자도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을 받으면서 일가족 4명 모두 코로나19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ZERO) 전국 5곳 중 하나여서 이번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지역사회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후 음식점과 상가 등의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며, 지역 소상공인 업계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여야 할 보건의료원 과장이 코로나 확진자 1호라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순창군은 A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조직내 분위기 쇄신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있다. 타지역 출퇴근자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와 모임 자제, 이동 최소화 등을 연일 강조하며, 코로나 추가확산 방지에 인간임을 쓰고 있다. 한편 17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5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센터 선정

여성가족부 주관 통합서비스 평가서 운영성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순창군이 17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평가에서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선)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지원사업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운영과 수업수행능력, 성과 등 전 영역에 걸쳐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3곳 등 총 247곳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 기관운영 및 분야별 사업 집행의 적정성, 이용자 규모, 만족도와 향후 센터의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지난 7월부터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서면과 현장 평가도 병행해 이뤄졌다.

지난해 센터의 전체 이용자 수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4개 사업 영역에 총 3만9,000명이 이용, 지난 2018년 5,672명과 대비해 690%가 증가해 통합서비스 제공의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는 센터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그동안의 사업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센터의 사업방향에 맞도록 노력하고 홍보한 결과다.

또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도 이번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군의 직·간접적인 지원도 한몫했다.

지난해 8월, 센터를 행복누리센터로 이전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확보

했고, 같은 해 12월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을 조성해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었다.

센터이전으로 교육실, 상담실 등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안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평도 많았다.

특히 지역활력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결혼이주여성 센터의 보조인력으로 적극 채용함으로써 수혜자에서 공급자로의 전환을 통해 자신감과 위상을 높이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우수센터 선정은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순창 특성에 맞는 사업과 정책발굴로 다문화가족들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수, 길이 35m, 폭 7.5~11m, 연면적 348㎡ 규모의 아케이드를 인월시장 입구에 설치했다.

남원시,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새 단장

남원시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수, 길이 35m, 폭 7.5~11m, 연면적 348㎡ 규모의 아케이드를 인월시장 입구에 설치했다.

인월시장은 이번 아케이드 설치로 통풍·환기 등을 유지하면서 야외공간을 차단하고 눈·비 등 기상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남원시는 올해 인월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뿐 아니라 집중호우시 피해방지를 위한 노후지붕 및 물받이 교체공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바다 재

포장공사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현 일자리 경제과장은 "이번 아케이드 준공을 통해 새로 단장한 인월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상인들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점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뿐만 아니라 상인 경영지원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남원시는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소방장비 작동 여부 등의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등 시설 내 감염병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7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로, 이번 점검은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실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겨울을 맞아 미

세먼지 등 공기 오염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증상자 발생 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과 외부 출입자 제한 및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위생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도 집중 점검했으며, 안전점검 후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이용 아동들의 겨울철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도록 해 아동 및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신청 받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알찬 한해 농사를 위해 관내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업인 실용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021년 1월 8일까지 남원시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시스템(온라인),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정규 교육과정(15차분 21회)과 유관기관 연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일 반작목(전북농업기술원 유튜브), GAP(농산물품질관리원 GAP서비스), 친환경농업인증(농업교육포털), 농작업 안전교육(농촌진흥청 유튜브) 등은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된다.

정규 교육과정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연계 과정인 전문작목 교육으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전라작목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연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일반작목(전북농업기술원 유튜브), GAP(농산물품질관리원 GAP서비스), 친환경농업인증(농업교육포털), 농작업 안전교육(농촌진흥청 유튜브) 등은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대형 건축 공사현장 합동점검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17일 쌍치실내다목적구장에서 안전불감증 의식개선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 건축공사현장 합동점검·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과 함께 한 합동점검·컨설팅은 화재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됐으며, 모든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기·용접 작업 전·후 안전조치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로자 화재예방 교육 ▲밀폐공간 통풍·환기시설 작동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비치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